

역사의 반복 - 8/2005

The three centuries from the beginning of the 13th century to the end of the 15th century were the Age of the Mongolian people (몽골인의 시대). Nomads (유목민) from Central Asia dominated the known world. At the crest of the period there were rules of Mongol or the kindred Turkish race and tradition in China, India, Egypt, North Africa, the Balkan peninsula (발칸 반도), Hungary, and Russia.

A man of foresight surveying the world in the early 16th century might well have concluded that it was only a matter of a few generations before the whole world became Mongolian – and probably Moslem. Just as in 1900 most people seemed to take it for granted that Europeans rule and sort of liberal (진보적) Christianity were destined to spread over the whole world. Few people seem to realize how recent and probably how temporary a things is this European ascendancy (유럽의 우위).

The Outline of History - Vol 2 - Chapter 33 - H.G. Wells - 1920

H.G. Wells 의 명작 "Outline of History"에서 뽑아온 이 글의 놀라운 점은 서양인이 동양인의 우월성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글이 1920 년도 경에 쓰여졌다는 사실이다. 이 책은 당시 인기가 대단했고 접하지 힘들었던 새로운 안목들이 많이 들어있어 과히 혁명적이라고도 볼수 있었던 책이며 현재도 서양사회의 인텔리 층에게 많은 영양력을 구사하는 책이라 볼수있다.

지금이야 일본, 한국, 대만,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세력이 어느 정도 선에 올라와 있고 이 나라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이 어느정도 성립되어 있지만 20-30 년 전만해도 동양사회 자체내에서도 상대적 절망감이 팽배해 있었고 서양사회에 대한 심각한 열등의식에 억매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글을 쓴 H.G. Wells 가 얼마나 무편견의 역사의식이 깊은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다.

약 300 년 동안 몽골민족이 지배한 영토는 인구로 보나 땅 면적으로 보나 전 로마나 헬라 제국이나 중국 통합 제국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고 그때까지 인류가 세워놓은 문명의 핵이자 원산지였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을 모두 포함한 역사의 최대 제국이었던 것이다.

근대 문명의 중심이라 부를 수 있는 영국, 불란서, 독일 등의 유럽지방의 문명조차도 그때와 비교가 안될 만큼 상대적으로 낙후했고,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영토들이다.

그러면 이 몽골 세력의 출현은 어떻게 가능하였던 것인가? 어떠한 조건이 형성됐기에 그들이 역사에 출연한 것이며 그들이 그렇게 오래동안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몽골인과 같은 유목 민족의 출현은 역사에 자주 반복됐다는 것이다.

헬라나 로마 제국들은 원래 그 당시 인류의 대부분이었던 농업민족들이 아니었고, 몽골인과 같은 유목민족들이었다.

유목민족들의 제국 창출의 첫 번째 행위는 항상 자기 부족들과의 통합을 이룬 후 더 경제적으로 발전되고 삶의 질이 높았던 농업민족들의 정복이었다. 근대 역사에서 서양이 동양나라들을 식민지화 하게 된 것도 한 예이다.

농업민족들은 기술을 발달시키고 인류 인구를 늘렸지만 결국에는 유목민족 지배 하에 놓이게 된 것이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인류의 역사는 유목인의 역사라 볼 수 있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인구나 자원이나 기술면에서 전혀 열등하지 않는 농업민족들이 유목민족에게 번번히 지배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사회 구조의 다른 점은 농업민족 사회의 권력은 항상 한사람의 절대자(왕이나 제사장)에게 귀속되어 사회가 퇴보하였지만, 생활이 더 독립적인 유목민족들 사회의 권력은 항상 부족단위와 가족단위로 나뉘어져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가 존재했다.

유목민족은 권력의 분립을 이루지 않고는 유지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 결과, 개인 개인의 능력을 발달시키고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독재 정치를 반대하고 민주정치를 선호하는 분명한 이유이다.